**토씨(Tosi) 페르소나 분석**

|  |  |  |
| --- | --- | --- |
| 항목 | 어린이 | 어머니 |
| 이름 | 천우진 | 박미옥 |
| 나이 | 6세 | 35 |
| 직업 | 유치원생 | 사무직 |
| 가족 | 엄마, 아빠 | 남편, 딸 |
| 성격 | 애니메이션 보기를 좋아함, 한글이 어려움 | 일에 열성적임, 아이 교육에 관심이많음, 다정함. |
| Bio | 유치원에 등원 후 부모님이 데리러 오실 때까지 기다린다. 집에 오면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바쁘신 부모님은 우진이와 놀아주기가 쉽지 않다. 심심해서 책을 펼쳤지만 아직 글자를 잘 읽지 못하는 우진이는 집중하기 어렵다. 부모님이 얼른 일을 끝내고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하루 중에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밀린 집안일을 다하면 피곤해서 아이와 놀아주기 쉽지 않다. 그런데 영상 매체를 틀어주기 버릇하다가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이 된다. 아이가 책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싶다. |
| Frustrations | 부모님이 집안일을 하실 동안 심심한데 뭘 하고 놀아야 할지 모르겠다. | 양육 시간이 부족하고, 아이에게 독서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
| Quote | 친구들과 놀거나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해요. 저녁에는 어른들은 일하시느라 바빠서 혼자 놀아야하는 시간이 많아요. 부모님께서 동화책을 사주셨지만 아직 글을 잘 읽지 못해서 혼자서 읽으면 재미없어요. | 우리 부부는 맞벌이고 저녁에 돌아와도 할 일이 많아서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부족해요. 아이에게 독서 습관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동화책을 사 주었지만 우리가 읽어주지 않으면 잘 보지 않아요. 유튜브 보다는 책을 읽히고 싶어요. |
| 사이트  방문 목적 | 혼자서 동화책을 읽는 것은 아직어려운데, 부모님이 바쁘실 때 재미있게 동화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아이가 심심해하거나 책을 읽어달라고 하지만 시간이 부족할 때, 아이 혼자서도 재미있게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
| 관심사 | 놀거리, 친구들 | 일, 육아, 아이 교육 |